

2018년 3월기 결산 내용

- 매출 54,740백만엔 · 영업이익 5,793백만엔 · 당기순이익 3,728백만엔
- 영업이익률 10.6%
- 5년 연속 흑자 행진

Peach Aviation 주식회사 (이하, Peach. 대표이사: 이노우에 신이치)는, 2018년 3월기 결산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54,740 백만엔 (전년 실적 : 51,709 백만엔) · 영업이익은 5,793 백만엔 (전년 실적 : 6,302 백만엔) 당기순이익은 3,728 백만엔 (전년 실적 : 4,944 백만엔) 으로, 5년 연속으로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흑자를 달성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은 10.6%, 평균 탑승률은 86.9%로, 고객 수는 약 512만 명이다.

대표이사 이노우에 신이치는 “2017년도도 국내외의 많은 고객이 이용해주신 덕분에, 5년 연속 흑자 달성을 할 수 있었다. 평소에 늘 저희 Peach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Peach 이용객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이어 “작년에는 센다이공항을 거점화하고 니가타 노선을 취항하는 등, 국제선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선 노선 확장도 늘려나갔다. 올해 중에는 신치토세 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하여, 일본 전체를 횡단하는 거점공항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Peach를 이용하는 외국 고객분들이 일본의 남북 전체를 이동할 수 있게 된다.”라며 “Peach는 앞으로도 2020년 방일 관광객 4천만 명, 그리고 2030년 6천만 명 달성을 위해, 일본의 인바운드 수요를 끌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연도부터 2019년도에 걸쳐 바닐라에어를 통합하는데, 지금까지 이상의 Peach만의 매력과 독자성 발휘, 아시아를 이끄는 일본 LCC를 목표로 하며, 일본과 아시아의 하늘을 끌고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Peach는 2020년 이후 50대가 넘는 기재와 국내/국제선을 합쳐 50개 이상의 노선을 가지며, 일본과 아시아를 잇는 노선을 더욱더 확충해, 아시아의 가교를 꿈꾼다.

【손익계산서】 2018년 3월기 실적(2017년 4월 1일~2018년 3월 31일, 단위: : 백만엔)

	당사업연도	전사업연도	전기대비
매출액	54,740	51,709	105.9%
영업이익	5,793	6,302	91.9%
경상이익	5,677	5,387	105.4%
당기순이익	3,728	4,944	75.4%

Peach 에 대해서 (www.flypeach.com)

Peach 는, 2012 년 3 월에 간사이공항을 거점으로 운항을 시작한 일본 최대 LCC 이다. 간사이공항에 이어, 2014 년 7 월 나하공항, 2017 년 9 월 센다이공항을 거점공항화하며, 현재 20 대의 항공기로 국내선 15 개 노선, 국제선 15 개 노선을 취항 중이다. 1 일 기준 최대 약 100 편 이상을 운항하고 있으며, 13,000 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했다. 2018 년 8 월 1 일부터는 오사카(간사이)- 구시로 노선을 취항하는 한편, 2018 년도 내에 신치토세 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할 예정이다.